

아홉번째 이야기

[2019 선교사 열전 ①]

내 뒤편에 태(胎)인 십자가¹⁾

2014년 BEE World의 이사 중 한 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거처를 마련해 주어 5개월 동안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 안식월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들랜드는 유전 지대 한가운데 있는 인구 14만 정도의 작은 도시입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를 교회에 소개해주셨던 BEE World 이사께서 우리를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로터리클럽에 데리고 갔습니다. 30~40명 정도의 회원이 같이 점심을 먹은 후 1시간 정도 모임을 하였습니다. 모임 전 이사께서 저희를 한국에서 안식년 차 방문한 선교사 부부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리엇 모리스 선교사]
장학재단 설립, 현재도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모임을 마쳤을 때 두 분의 노신사가 한 분이 다른 한 분의 탄 휠체어를 밀고 저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휠체어를 미시던 분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1907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1907년이면 한국에 선교가 시작된 지 20년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신 노신사는 치매가 와서 거동조차 불편하셨지만, 어눌하신 말로 저희에게 다짜고짜 ‘해리엇 모리스(Harriet Morris)’를 아느냐고 했습니다. “모르는데요……혹 누구신데요?”라고 묻자 그 노신사는 한국에 선교사

1) “내 뒤편에 태인 십자가”란 ‘내 몸의 태(胎)와 같이 나 자신이 받아 지닌 십자가’로 ‘내가 평생 감당해야 할 나의 뒤편으로 주어진 가볍지 않은 사명’을 가리킨다.

로 가셨던 자신의 고모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라는 질문에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선교사가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나?’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적어 집에 돌아와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이화여대의 가정대학 전신인 가정학과를 설립한분으로 《조선요리법(Korean Recipes)》(1945년) 등 한국 음식에 관한 책도 저술해 한국 음식을 서구에 알리는 데 앞장선 분이셨습니다.

1894년에 출생한 모리스 선교사는 미국 북 감리회 파송으로 20대 후반인 1921년부터 1941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했고, 다시 1956년부터 1959년까지 한국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때 한 궁금증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고작 30~40명이 모인, 딱히 그리스도인 모임도 아닌 모임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갔던 분들의 후손이 두 가정이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 빛을 이 나라에 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30년이 되고, 선교사가 된 지 15년이 넘도록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을 품은 채 안식일을 마치고 2015년 초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장로님이 호남 지역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는데 무척 은혜로웠으니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고 있는 영적 빛에 대해 궁금했기에 망설임 없이 장로님께 기초 자료를 얻어 여러 분의 도움으로 ‘찾아온 사랑을 찾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8월 80~90명 정도의 BEE 회원이 전주, 광주, 여수, 순천의 조선 초기 선교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무더운 날이었지만 막상 초기 선교사들의 한국에서의 삶과 사역을 하나씩 짚어보니 은혜가 넘쳤습니다.

호남에 온 첫 선교사 중에 ‘전킨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호남의 첫 교회인 전주서문교회를 세운 전킨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전킨 선교사]

‘내 말이 다리에서 떨어져 나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 때문에 절개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편도선염을 가져왔다. 내 어린 것은 의사도 없이 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며칠 후 폐렴으로 죽었다. 아내는 이 뿌리에 염증이 생겼으나 그녀의 통증을 멈추게 할 의사가 없었다. 나는 그 뒤 상당 기간 아팠으며.....양 편도선 제거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한쪽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은 너무 고통스러웠다.....이런 일들과 기타 여러 가지 것이 한 해를 넘기는 것을 힘들게 했다.’

전킨 선교사의 세 아들은 각각 19개월, 2개월, 20일 만에, 그리고 그 자신은 43세에 죽어 조선에 묻혔습니다. 전킨 선교사뿐 아니라 초기 선교사 대부분은 20대 꽃다운 나이에 조국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등지고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인,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도 암흑과 같던 조선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아내를 잃기도 하고, 어린 자녀를 앞세우기도 하고, 본인도 풍토병에 걸려 고통 받고, 더러는 이국만리 조선 땅에 묻혔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아와 한센병 환자 등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돌보았고, 학교를 세우고, 여성을 개화하고, 서구식 병원을 세워 병든 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존재합니다. 세상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들의 선택은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초기 선교사님의 삶과 희생을 보면 같은 ‘선교사’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불합리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들이나 우리나라 동일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은혜를 입어 동일한 구원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한 천국에 갑니다. 그들이 기도드리시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기도드리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들의 열망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에 얽매이며 괴로워하고, 어쩌면 믿음의 삶에 대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기에 바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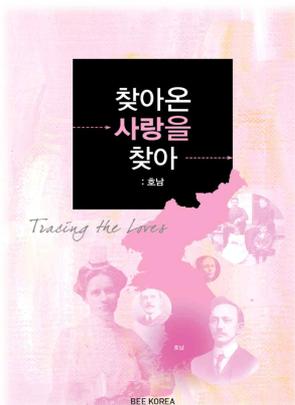
[전킨 선교사의 묘비]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역, 묘비 앞에는 그의 세 아들의 작은 묘비가 있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뉘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뒤편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나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찬송가 339장)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고백과 실천이 빠진 것은 아닌지요? 분명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이제까지 그 십자가에 너무 무심하지는 않았는지요?

《찾아온 사랑을 찾아》 서문 중의 일부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여정을 계획하며 우리는 이러한 만남이 그저 수많은 만남 중 하나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심히 스쳐 가는, 잠시 눈물 흘리며 감동하고 잊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더 나아가 삶의 목표마저 바꾸는 특별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며 계획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찾아온 사랑에 너무 무지했는지 모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무지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품고 찾아가기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찾아온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한 자이기에 아직 어두움이 가득한 땅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찾아온 사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쓴이 조문상 선교사 : BEE KOREA 사무총장]

BEE의 보석 찾기

09. 김혁수 집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BEE 기본과정은 2009년에 마쳤지만 더 깊이 공부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온누리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 부천에서 개척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년 말씀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가 생겼고, 조금씩 배운 BEE 과정들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지금은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청년 멘토로 섬기면서 BEE가 청년들의 말씀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올해 FTS를 수료한 어린아이와 같지만 BEE가 한국과 모든 나라의 차세대 젊은이들을 세우기를 기대하고 능력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BEE는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습니다!

가족은 아내 장혜영 집사와 10대인 중3인 예온이와 중1인 예훈이가 있습니다.

10.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양재 토요 BEE 토요기도모임에서 남미 테이블을 기도로 섬기고 있을 뿐 아니라 몸소 선교사 남편과 함께 콜럼비아 파송을 받고 현지인들과 삶을 함께하고자 하는 미녀 선교사님~ 지금은 잠시 우리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5월 4일(토) 9:30 상도동 BEE 선교센터에서 상반기 FTS 졸업식이 있습니다. 더 낮은 섬김의 자리로 가고자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하기를 기도합니다.

2. 6월 16일(일)-21일(금)의 '몽골 DPM 졸업식 및 FTS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몽골 땅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4월 27일(토) 아침 9시, 세 대의 버스가 120여명의 온비아 학생을 태우고 강화 '교산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100여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껴보는 하루였습니다.

